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6호 【루계 제25625호】 주체106(2017)년 4월 26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군, 혁명적당군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보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건군위업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경축하는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가 건군사상 최대규모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보시였다.

천재적인 군사전략사상과 무비의 담력, 탁월한 령도로 백두산혁명강군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강철의 령장 김정은동지를 모실 시각을 기다리는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은 한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오전 10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전선동부비행장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인민무력상 륙군대장 박영식동지가 맞이하였다.

김원홍동지, 리영길동지, 조남진동지, 렴철성동지, 조경철동지를 비롯한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이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륙군상장 박정천동지가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렬한 조선인민군 해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과 조선인민군 전선최정예포병무력을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는 인민군장병들은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가장 빛나는 위훈의 력사를 창조하여온 조선인민군의 전투적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일격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격멸소탕하고 단숨에 남조선을 깔고앉아 평정해버릴 전투적열망으로 심장을 펄펄 끓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관람석에 자리를 잡은 총정치국, 인민무력성, 총참모부 지휘성원들, 군종사령관들과 정치위원들, 군단장들과 정치위원들, 조선인민군 사단장, 려단장들, 각급 군사학교 교원들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령에 따라 전선집단의 최정예포병부대들이 화력진지에로 기동을 시작하였다.

2면으로 계속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군, 혁명적당군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보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기와 최고사령관기를 펄펄 휘날리며 진출하는 대규모포병집단의 장엄한 철의 흐름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조선혁명의 초창기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만들어진 연길폭탄이 오늘은 세계가 공인하고 부러워하는 강력한 화력타격수단으로 발전되였다고 뜻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여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잠수함들이 신속히 침하하여 《적》함선들에 강력한 어뢰공격을 들이대였고 초저공으로 바다우를 스칠듯이 날으며 목표상공에 진입한 추격기, 습격기, 폭격기들에서 멸적의 폭탄들이 불소나기마냥 쏟아졌다.

하늘땅이 뒤집어질듯 우뢰같은 폭음이 천지를 진감했으며 삼단같은 물기둥이 솟구치고 목표섬에서는 화광이 충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목표들을 타격하는 장쾌한 광경을 보시면서 명중이라고, 백발백중이라고, 우리 잠수함해병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정말 잘 싸운다고 치하하시였다.

이어 수㎞의 해안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300여문의 대구경자행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헤가르며 번개같이 날아간 복수의 불줄기들이 연해연방 《적진》을 산산이 들부시였고 황토먼지가 타래쳐 올랐다.

우뢰같은 폭음과 멸적의 불줄기는 분별없이 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움쩍하기만 한다면 상상할수 없는 기상천외한 선제타격, 가차없는 불세례로 침략의 본거지들을 초토화해버리고 생존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릴것이라는것을 선언하는 백두산총대의 증오와 분노, 징벌의 거세찬 분출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영용한 포병들이 목표들을 사정없이 두들겨팬다고, 가슴이 후련하게 정말 잘 쏜다고, 타격이 매우 정확하다고 하시면서 적대세력들에게는 오직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하는 우리 일당백포병무력의 불의 세례가 어떤것인가를 잘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군종합동타격시위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군절 85돐에 전례없는 규모로 성대히 진행된 군종합동타격시위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군종합동타격시위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 우리 인민군대처럼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혁명의 개척기에 추켜든 붉은기를 자그마한 변색도 없이 높이 들고 장구한 전 로정을 백전백승으로 수놓아온 혁명군대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시면서 남들은 상상할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조선인민군의 불굴의 정신력과 최강의 전투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자기의 첫걸음을 떼고 장장 85성상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무력이 오늘 최첨단공격수단들을 다 갖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장성강화되고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의 최전방에서 혁명적당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고 하시면서 건군절을 맞이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며 이 땅우에 최후승리의 새 아침이 찬연히 밝아오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는 수령결사옹위를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있는 우리 인민군대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되여 목숨으로 사수할것이며 전대미문의 가혹한 제재와 압박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더러운 추종세력들의 머리우에 가차없는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붓고 극악무도한 원쑤들의 소굴을 최후멸망의 무덤으로 만들것임을 다시금 힘있게 떨치였다.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군, 혁명적당군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으로는 조선인민군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주체의 선군위업완성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뜨겁게 굽이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들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일수 있는 주체형의 혁명적무장력을 마련해주시고 천하무적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들에도 다함없는 경모의 물결이 흘렀다.

각지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부대와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군건설사상과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 진정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25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렬사릉들과 렬사묘의 화환진정대에 놓여있었다.

렬사릉들과 렬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시내근로자들이 화환진정들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백두산녀장군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화환진정대 《영웅들의 넋》에 진정되였다.

이어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들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통일독립,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고귀한 생을 바친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세대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 조국수호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참가자들은 렬사릉들과 렬사묘를 돌아보았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2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광열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민족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담보하는 튼튼한 군사적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참가자들은 불세출의 전설적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칭송과 흠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군사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동방의 핵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조국의 천리방선에 차넘치는 군민의 뜨거운 혈연의 정

전군절에 즈음하여 인민대표단들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방문

조선로동당의 선군령도따라 사회주의승리의 찬란한 려명을 마중해가고있는 온 나라 인민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위용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을 가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희세의 선군령장들을 높이 모시어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떨쳐온 조선인민군의 전투적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무진막강한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압살광풍을 쳐갈기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고있다.

전군절에 즈음하여 인민대표단들이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방문하였다.

올해를 훈련의 해로, 싸움준비완성의 해로 정해준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백두산훈련열풍속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굳건히 다지며 사회주의성새, 세계평화수호의 전초선을 억척같이 지켜가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의 가슴가슴은 전군절을 인민의 대표들과 함께 경축하는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가 되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는 인민군부대들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휘날리는 부대들에 인민대표단성원들이 도착하자 인민군장병들과 군인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이 인민군장병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대해같은 사랑을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은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대업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수령결사옹위군, 혁명적당군의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조국의 천리방선초소들에 군민의 뜨거운 혈연의 정이 차고넘치였다.

영광의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당의 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앞장에서 받들며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온 조선인민군.

일당백초병들의 미덥고 끌끌한 모습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대표단성원들, 고향의 부모를 만난것만 같아 기쁨을 금치 못하는 군인들로 부대들은 흥성거리였다.

인민대표단성원들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인민들의 투쟁소식을 이야기해주고 성의껏 마련한 원호품들도 넘겨주었다.

그들은 부대들에서 군인들과 함께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경축하여 진행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에 참가하였다.

대를 이어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주체의 건군사에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겨온 부대들의 어려온 돌아보는 대표단성원들의 얼굴마다에는 혁명의 총대를 틀어잡고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고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을 가지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리학문소속부대를 찾은 인민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부대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군인회관과 교양실, 병실, 식당 등을 돌아보고 군인들이 준비한 경축공연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한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당의 훈련혁명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례없는 백두산식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명사수, 명포수의 영예를 빛내어가고있는 병사들의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근위부대자랑가》, 《땅크병의 노래》 등의 노래가 초소의 산발들에 메아리쳐갔다.

인민대표단성원들은 군인들의 훈련을 보면서 원쑤들이 감히 우리 조국땅에 선불질을 해댄다면 우리 식의 성전, 우리 식의 보복타격으로 적들을 단숨에, 단매에, 단방에 가차없이 죽탕쳐버리고야말 무적강군의 전투적기상을 새겨안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정신, 생활기풍을 본받아 혁명적군인정신, 선군문화로 사회를 선도해나가고있는 군인들의 전투적이며 보람찬 군무생활도 대표단성원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대표단성원들은 전투정치훈련과 인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병사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군사복무의 나날을 빛나는 위훈으로 새겨갈것을 바라는 인민의 뜨거운 당부를 전하였다.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렴철수소속부대를 방문한 인민대표단성원들은 주체적해군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으며 우리 해병들이 그 어떤 대적도 쳐물리칠수 있는 용사들로 자라나도록 필승의 지략과 용맹을 안겨주신 백두산장군들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하였다.

적들의 도발로 벌어진 여러차례의 서해해상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렬사들의 보를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전사들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군민대단결,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이 꽃펴나는 부대에서 그들은 군인들과 어울려 체육경기도 하고 예술공연무대도 펼치였다.

용감한 해병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불굴의 육탄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령해를 믿음직하게 지켜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병사들은 대답했네》,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리라》를 비롯한 노래들을 힘차게 불렀다.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을 틀어쥐고 백두산훈련열풍속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 바다의 결사대로 자라난 해병들의 미더운 모습은 대표단성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싸움준비와 군인생활개선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이곳 부대의 지휘관들처럼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통이 큰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대오의 진격로를 열어나감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었다.

군대와 인민의 혈육의 정은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리평준소속부대에도 차고넘치였다.

인민대표단성원들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무적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된 부대의 어려온을 돌아보고 군인들의 훈련을 보았다.

그들은 서슬푸른 칼날이 되어 원쑤들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도려낼 멸적의 각오로 가슴 불태우며 훈련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일당백전투원들에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후방인민들의 전투적인사를 전하였다.

군인들은 만일 미제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이 땅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백두산의 폭풍같이, 백두산의 번개같이 단숨에 달려나가 원쑤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없애버리고야말 철의 의지를 토로하였다.

인민대표단성원들은 군인들과 함께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도 하고 공연무대에서 서로 어깨를 걸고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가리라 백두산으로》, 《어머니의 행복》 등의 노래도 부르면서 군민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모습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품속에서 한식솔을 이룬 주체의 우리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군민대단결의 자랑찬 모습이였다.

군인들과 전군절을 즐겁게 보내면서 대표단성원들은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일당백의 만능의 싸움군, 백두산호랑이들로 억세게 준비하여 조국보위의 한길에서 금별의 위훈을 세울것을 부탁하였다.

전체 인민군군인들은 인민의 믿음어린 당부를 명심하고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철옹성같이 수호하며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 우리 당의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가 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인민대표단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의 기둥, 주력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며 조국보위와 반미대결전, 만리마대진군의 최전방들에서 승리만을 이룩해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있기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기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인민대표단들의 방문은 당의 선군혁명령도밑에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가 확고히 실현되고 군민대단결이 사회의 밑뿌리로 반석같이 다져진 불패의 강국, 주체조선의 참모습을 보여준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각지에서 진행

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백승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창조하여온 백두산혁명강군의 창건기념일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기쁨과 환희가 당창건기념탑, 개선문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에 넘쳐났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무도회가 시작되였다.

참가자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였다.

《밀림속의 승전가》, 《7.27행진곡》, 《그 품이 제일 좋아》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춤률동을 이어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선군의 보검으로 우리 조국을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넘볼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가는 더없는 영광과 긍지가 넘쳐나는 속에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전선에서 만나자》, 《우리는 만리마기수》 등의 노래가 울려퍼지며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의 영예를 힘있게 떨쳐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인양 《승리는 대를 이어》, 《청춘송가》의 노래선률이 무도회장들에 메아리쳤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사회주의조국수호전과 부강조국건설에서 500만 청년전위들의 기상과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갈 불타는 열의로 충만된 무도회는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의 노래로 끝났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경축무도회들이 진행되였다.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진행

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승리는 대를 이어》가 25일 평양체육관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자력자강의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전군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과 청년학생들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서곡 《조선인민군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남성중창 《유격대행진곡》, 금관4중주 《결전의 길로》, 남성4중창 《근위부대자랑가》, 녀성독창 《선군을 노래할 때》, 시이야기 《만대에 빛나라 백두산총대력사여》, 남성기타병창 《전선행렬차》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을 당과 수령의 군대, 일당백의 무적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군건설령도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관람자들은 공연을 보면서 희세의 천출명장들을 높이 모시여 인민군대는 자주시대 혁명무력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고 85성상에 달하는 승리의 력사와 빛나는 전통을 창조한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청년중시를 우리 당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한 녀성5중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남성독창 《아버지라 부릅니다》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녀성독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앞으로》에서 출연자들은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전민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만리마시대 영웅청년신화를 다시한번 창조할 청년전위들의 신념의 맹세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우리 당의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충정으로 받들어갈 계승자들의 철석의 의지가 힘있게 맥박친 공연은 시와 합창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종곡 《승리는 대를 이어》로 끝났다.

각지에 있는 렬사들의 동상과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에 화환 진정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각지에 있는 렬사들의 동상과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에 25일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진정들에는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렬사들의 동상과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에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충직한 혁명전사의 가장 값높은 삶을 빛내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통일독립,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고귀한 생을 아낌없이 바친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조 무관단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 진정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25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혁명렬사릉과 렬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무관단성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백두산녀장군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무관단의 명의로 된 화환이 혁명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애를 바친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무관단성원들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화환진정대 《영웅들의 넋》에 《영웅적조선인민군 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이 씌여진 화환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한 영웅적조선인민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분위기를 고조시켜보려고 발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정책을 고안해내고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지지를 얻어보려는 풍풍이판을 벌려놓고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 대표들을 백악관에 불러다놓고 우리 문제를 론의하였는가 하면 백악관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인물들의 참가하에 국회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조선정책관련 비공개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한편 미국무장관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의 비핵화와 관련한 상급회의라는것을 주최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압박을 로골적으로 제창한것으로서 다치면 터지게 되여있는 조선반도의 현정세속에서 전면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것이나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난 반세기이상 계속되여온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과 핵위협이 바로 우리를 오늘의 핵보유에로까지 이르게 한 근원이며 추동력이 되였다.

트럼프행정부가 우리의 발라진 전략적지위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바로 볼 대신 초보적인 현실감각도 없이 고안해낸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이야말로 허황하고 무모하기 그지없다.

미국이 우리를 기어이 압살하기 위해 칼을 뽑아든 이상 우리는 정의의 장검을 뽑아들고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말것이며 만능의 보검인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미제의 숨통을 끊어놓을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위대한 병진로선의 기치높이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였는가를 다시금 뼈저리게 실증해주고있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며 미국은 바로 제가 지른 불에 제가 타죽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것이다.

총련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송동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25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25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당군의 불패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가는 긍지드높이 전군절을 뜻깊게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 외국손님들이 공연에 초대되였다.

합창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와 《조선인민군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관현악과 합창 《혁명군의 노래》, 남성독창 《전쟁의 3년간》, 무용 《나의 총가》, 녀성중창 《전선길의 뻐꾹새》, 남성독창과 합창 《조국이여 말하라》, 바얀을 위한 기악과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혼성중창과 합창 《전진하는 사회주의》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주체적군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강대한 군사력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85성상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녀성6중창 《우리의 김정은동지》에서 출연자들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주체의 선군위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인민군장병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 안팎으로 멋진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이며 락천적인 생활을 반영한 남성6중창 《보람찬 병사시절》, 타프춤 《명사수의 자랑》, 혼성2중창 《행군길에 꽃피는 관병의 사랑》 등이 련이어 무대에 올랐다.

무적의 총대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보위해온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원쑤들이 이 땅우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일당백강군의 기상이 손풍금과 남성중창 《나의 할은 정든 조국땅》, 금관2중주 《항공군가》, 합창 《로병의 노래》를 비롯한 종목들마다에 세차게 맥박쳤다.

우리 운명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이룩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맹세를 구가한 공연은 관현악과 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났다.

공연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을 세련된 예술적형상으로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주체적군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동방의 핵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한 력사적사변

세기를 주름잡은 전설적인 천리마시대가 세계를 당당히 앞서나가는 만리마시대로 이어져 세인을 경탄시키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민족최상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쳐나갈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백절불굴의 전투적기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사변이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진행되는 열병대오와 군중시위대오들에는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력사,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새로운 만리마시대를 펼쳐가는 강용한 우리 인민의 기상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이번 열병식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 실체와 우리 당의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다시금 힘있게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것은 력사의 기적이며 이것은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세계가 놀라고 감탄하고있다.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무적의 열병대오에는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자라 강화발전되여온 혁명적무장력의 성스러운 행로와 선군의 기치, 병진의 보검으로 억척같이 다져온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이 그대로 비끼였다.

우리를 압살해보려고 기승을 부리는 원쑤들이 덤벼든다면 금시라도 노호한 격랑의 불길을 내뿜을것만 같은 무적의 혁명대오들과 고도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타격수단들의 출현은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임의의 공간에서 침략과 도발의 아성을 순식간에 초토화해버리고 진짜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톡톡히 보여줄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기상, 세계가 아직 알지 못하는 첨단무기들을 련이어 만들어내는 개발창조형의 국방공업으로 비약한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였다.

그 어떤 강적도 격멸소탕할수 있는 최강의 전투력을 갖추고 사회주의성새, 세계평화수호의 전초선을 억척같이 지켜가는 우리의 혁명무력은 정의의 핵으로 부정의의 핵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조국과 인민을 지킬 만만의 태세를 견지하고있다는것을 열병식을 통해 세계앞에 당당히 선언하였다. 백두밀림에서 울린 항일대전의 첫 총성이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의 축포성으로 메아리치는 참으로 격동적인 광경이였다.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기에, 통일을 간절히 바라기에 평화의 원쑤, 통일의 암초를 기어이 없애버릴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는 우리 군대의 이 멸적의 기상앞에 누군들 전률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놀라운 북의 열병식광경, 군단장들 열병부대 인솔》, 《신형첨단무기 공개, 대미무력시위》, 《이번 열병식은 전략군중심, 미국을 겨냥한 전략능력 과시》, 《북, 대규모열병식… 신형전략무기 선보여》, 《북의 미싸일개발 어디까지… 공개한 새 대륙간탄도미싸일은 〈북극성 3형〉으로 추정》…

《대북선제타격》이니, 《4월전쟁》이니 하며 허세를 부리던 적들은 말그대로 혼비백산하여 갈팡질팡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북은 이번에 《전략군의 열병식이 아닌가 할 정도》로 재래식무기를 최소화하고 대륙간탄도미싸일을 포함한 전략무기들을 열병식에 총동원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며 핵과 미싸일 등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것이라고 평하였다. 괴뢰군부것들 역시 예상보다 규모가 엄청나며 질적, 미국과의 대결을 의식한것으로 보인다, 군단장을 비롯한 고위지휘관들이 직접 열병부대를 인솔하고 그들의 이름과 군사칭호를 모두 공개한것은 북의 열병식사상 처음이다, 전략적능력을 강조하여 《싸드》와 《킬 체인》을 무력하게 만들수 있다는것을 암시하였다고 하면서 아우성쳤다.

그토록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강도의 군사적위협과 야만적인 제재봉쇄에 매달리며 단말마적발악을 다하였지만 또다시 패배의 고배를 마신것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였다.

자기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옹성같이 뭉친 우리 천만군민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당해낼수 없다는것을 세계는 똑똑히 알게 되였다.

원쑤들의 그 어떤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도, 전쟁위협의 난관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도도한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

미국이 그 무슨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니 뭐니 하며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조선반도주변에 긴급투입하는것으로 또다시 우리를 위협공갈하고있지만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 위협하며 힘자랑을 하는 비겁쟁이들의 허세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데 떨친 승리의 영웅적 전통이 대를 이어 이어지고있는 이 땅에는 《절대병기》로 일컬어지는 수소탄으로부터 대륙간탄도로케트에 이르기까지 가질것은 다 가진 천하무적의 군대가 있다.

우리에게는 적들의 그 어떤 침공도 격파분쇄할수 있는 우리 식의 모든 선택안들이 있으며 선군조선은 미국이 가해오는 그 어떤 도발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준비가 되여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도발책동을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비롯한 우리 식의 초강경대응으로 철저히 짓부셔버릴것이다. 그것은 침략과 도발자들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는 파멸적징벌의 불벼락이며 주체조선의 명예와 존엄을 걸고 최후승리의 기발을 휘날릴때까지 전개되는 미증유의 결사전이다.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원쑤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천만군민의 불패의 일심단결과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쓸어버릴수 있는 무진막강한 국력이 있다. 만일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끝끝내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천출명장의 령도를 받는 백두산혁명강군은 침략의 총포성을 도발자들의 참혹한 장송곡으로 만들어놓을것이다.

명심하라.

우리가 멸적의 발사단추를 누르는 순간 도발의 본거지들은 순식간에 불바다, 재더미로 될것이며 남조선괴뢰들이 구세주마냥 섬기는 미제의 핵전략자산들은 파철더미로 나딩굴게 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초강경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허 영 민

죽어가는자들의 마지막발버둥질

우리의 거세찬 진전을 가로막고 북침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미국과 괴뢰들의 음모책동이 최후발악적인 단계에 이르고있다.

얼마전 괴뢰패당이 남조선에 날아든 미국부대통령과 미국회 상하원의원방문단 등과 만나 반공화국모의판들을 벌려놓은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괴뢰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역도를 비롯한 보수패당은 《전략적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느니, 《모든 선택안이 탁우에 있다.》느니 하며 화약내를 풍기는 미국상전들과 맞장구를 치며 대결악담을 미친듯이 쏟아냈다. 이자들은 《북핵, 미싸일발사위협》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굳건한 동맹》과 《대북공조외교》에 대해 떠들었는가 하면 나중에는 《망설이면 안된다.》느니, 《감내하기 어려운 무차별적인 압박》이니 하고 고아대면서 반공화국제재봉쇄와 군사적압박의 강화를 청탁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그야말로 외세에 의존하여 동족을 해치려고 지랄발광하는 미치광이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망동이다.

지금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으로 물밀듯이 쓸어들면서 조선반도에는 어느 시각에 핵버섯구름이 치솟을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부대통령이니, 미국회 상하원의원방문단이니 하는 불청객들이 남조선에 련이어 날아든것은 괴뢰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북침야망을 기어코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괴뢰패당이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모의판들을 련이어 벌리면서 상전에게 《대북압박공조》의 강화와 반공화국압살을 구구 애걸한것은 마치도 주인을 믿고 짖어대는 삽살개를 방불케 한다. 괴뢰들의 망동이 조선반도에서 북침핵전쟁발발위험을 더한층 고조시키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로 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괴뢰패당이 미국상전들과 아무리 반공화국모의판을 벌리며 발광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괴뢰들의 망동을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불가항력적인 위력에 전률한자들의 부질없는 놀음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괴뢰들이 《북핵, 미싸일발사위협》을 계속 떠들어대며 그것을 구실로 반민족적인 북침전쟁책동을 합리화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압살흉계를 실현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이다.

지금 극도의 북침현혼증에 사로잡힌 미국의 호전계층은 그 무슨 《대북선제타격》에 대해 떠들어대며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집중시키고있다.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히게 된 괴뢰보수패당은 미국이 북침선제타격을 꾀하며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일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자 살 때를 만난듯이 기고만장해 날뛰고있다. 괴뢰들이 이번에 미국부대통령을 비롯한 상전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망설이면 안된다.》느니, 《감내하기 어려운 무차별적인 압박》이니 하고 고아댄것은 그야말로 외세의존과 동족대결로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버둥거리는 주구로서의 몰골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괴뢰들이 과대망상증에 빠진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우리와 마지막까지 맞서보겠다는것은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민심의 버림을 받고 머지않아 력사무대에서 먼지처럼 사라질자들이 분수없이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압살흉계를 꾸미고있는 바로 여기에 림종의 시각을 가까이할수록 북남대결소동에 더욱 기를 쓰고 매달리는 역적무리의 추악한 정체가 그대로 비껴있다.

괴뢰들은 죽더라도 이것만은 알고 죽어야 한다.

자력자강의 힘으로 가질것을 다 가지고있는 우리에게 두려울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강위력한 자위적핵억제력앞에서는 괴뢰들이 구세주처럼 떠받드는 미국도 감히 어쩔수 없다.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치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세계는 우리가 빈말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박 철 준

우리의 땅, 우리의 제도를 짓밟으려는 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것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우리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며 천백배의 보복일념으로 가슴을 끓이고있다.

미제날강도들은 핵항공모함타격집단들을 조선반도주변수역에 전개해놓고 《선제타격》을 떠들고있는가 하면 괴뢰호전광들과 함께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도발적인 전쟁연습에 광분하며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하여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제재압박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모한 군사적움직임과 제재압박소동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엄중히 파괴하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무모한 군사적도발망동으로, 이 땅에 기어이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로골적인 선전포고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섬멸적인 핵타격전으로 대답하여 침략자, 도발자들을 씨도 없이 소탕해버리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항전의지이며 필승의 선언이다.

지금 우리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일단 명령만 내리면 사랑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 귀중한 나의 땅을 지켜 철천지원쑤 침략의 무리에게 괴멸적징벌을 안길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오늘도 이 나라의 산과 들 그 어디에나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에 의하여 피흘리며 쓰러진 우리 농민들의 사무친 원한이 어리여있다.

지난 세기 50년대 평화롭던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무고한 우리 농민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해죽이였으며 로동당원이라고 하여 눈알을 뽑고 심장을 도려내고 사지를 찢어죽이였는가 하면 열성농민이라고 하여 배를 가르고 생가죽을 벗기고 망돌로 갈아 처참하게 학살한 희세의 살인마들이 다름아닌 미제야수들이였다.

바로 이러한 살인악귀들이 오늘 또다시 우리의 정든 고향마을과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조국에, 민족의 머리우에 무서운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전쟁광기를 부려대고있으니 어찌 복수의 피가 끓지 않을수 있겠는가.

우리 전체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낫과 호미를 총대로 바꿔잡고 용약 전선으로 달려나가 조국의 귀중한 촌토를 지켜 영웅하게 싸운 전세대 농민영웅들처럼 가증스러운 침략의 무리에게 상상조차 할수 없는 무서운 징벌의 철추를 내릴것이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애국의 더운 피와 땀, 열정을 바쳐 가꿔가는 정든 옥토벌, 풍요한 대지는 곧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찾아주시고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빛내여가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이다.

구수한 낟알향기 차넘치고 오곡백과 설레이는 우리의 땅, 땀을 바쳐 가꿔가는 풍년열매들이 침략자의 더러운 군화밑에 짓밟히게 할수 없고 로동의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 울려퍼지는 우리의 정든 보금자리 사회주의문화농촌들에 원쑤들의 폭탄 한발 떨어지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원쑤격멸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전쟁미치광이들인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을 잡초처럼 쓸어버려 무덤더미에 처넣을것이다.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백두산혁명강군과 함께 선군의 총대로, 목숨으로 지켜가는 이 땅에서 감히 협동벌의 벼포기 한대, 문화주택의 기와 한장이라도 다치는 경우 그 더러운 운명이 영영 끝장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을 억세게 틀고 만리마의 기상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믿음직하게 지켜갈것이며 원쑤들이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땅을 차고 달려나가 침략자, 도발자들을 모조리 죽탕쳐버리고 반미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주체106(2017)년 4월 25일

평 양

대미추종에 환장한 역적무리

남조선에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싸드》배치소동을 반대규탄하는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국녀성련대 등 여러 단체들과 성주군, 김천시의 주민들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한편 성주골프장주변에서는 이곳 주민들이 《싸드》배치를 위한 장비들을 반입하려는 괴뢰패당에게 결사적으로 항거해나섰다. 이 과정에 일부 주민들이 부상당하여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4월 21일 《싸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의 단체들은 괴뢰당국이 성주골프장을 미국에 제공하는 합의를 꾸며낸데 대해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불법적인 《싸드》부지제공을 즉각 무효화하고 《싸드》배치소동을 중지할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온갖 재난을 몰아오는 미국의 전쟁괴물을 끌어들이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있으며 《싸드》배치를 저지시키기 위해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당국은 분노한 민심에는 아랑곳없이 미국과 야합하여 《싸드》배치를 계속 강행하는 친미역적행위를 일삼고있다.

얼마전 괴뢰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역도는 《싸드》배비는 미국과 협의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것이라고 줴쳐댔다.

다른 괴뢰당국자들도 《싸드》배치문제에 대한 립장에 변화가 없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고있다.

괴뢰국방부것들이 《싸드》의 운영준비를 다그친다는 립장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떠들어대고 괴뢰외교부 장관 윤병세역도가 《싸드》배치를 외부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추진한다는것이 미국과의 공동립장이라고 고아댄 사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괴뢰당국자들만이 아니다.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대통령》선거전에 뛰여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패거리들은 지금 상투적인 수법대로 그 무슨 《안보》위기에 대해 법석 떠들어대면서 《싸드》배치를 극구 환영해나서고있다. 지어 이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로 《싸드》포대를 추가구입해야 한다는 망발까지 줴쳐대고있다.

이런 속에 괴뢰군부는 지금 성주골프장주변에서 인민들의 《싸드》배치반대투쟁이 고조되는것과 관련하여 대형수송직승기를 동원하여 불도젤과 굴착기 등 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반입하고있다.

괴뢰패당의 망동으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싸드》의 조기배치는 날로 현실화되고있다.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전적으로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것이라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괴뢰들이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따른 《최소한의 방어적조치》라느니 뭐니 하며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정당화하고있지만 그런 궤변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싸드》의 취약성은 이미 낱낱이 드러났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싸드》를 가지고서는 북의 탄도로케트들을 막을수 없다고 인정하고있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그와 야합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상전의 《싸드》배치계획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고있다.

《싸드》가 배치될 경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긴장이 고조되는것은 물론 기지주변인민들의 생존리권은 완전히 황폐화될것이며 남조선은 대국들의 핵대결장으로 전락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된 생활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상전에게 아부굴종하며 《싸드》배치에 환장해날뛰는 괴뢰역적패당을 울분에 넘쳐 단죄규탄하며 반《정부》투쟁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있는것이다.

친미사대와 대미추종에 환장하여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노들이 권력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언제가도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의 《싸드》배치반대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들은 매국역적들을 반대하는 굴함없는 투쟁으로 자신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고야말것이다.

김 철 남

인민군용사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라배워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쳐갈 결의에 넘쳐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친혈육의 정으로

저는 팔순이 넘은 전쟁로병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우리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해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있는 고마운 사람들을 자랑하고싶어서입니다. 그들중에는 선교구역종합식당 장안청량음료점 책임자 정경희, 당세포위원장 정미란동무를 비롯한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전쟁로병이라고 생활상애로가 있을세라, 앓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는 이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친혈육의 뜨거운 정을 느끼군 합니다. 이들은 구역의 10여명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해 친혈육의 정, 동지적사랑을 아낌없이 바치고있습니다. 국가적명절이나 기념일은 물론 생일날도 잊지 않고 꼭꼭 찾아와 축하해주는 이들을 우리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은 한식솔로 여기고있습니다.

손님들에 대한 봉사로 바쁜 속에서도 우리들이 감기라도 앓을세라 늘 관심하며 건강식품이며 보약재, 별식들을 마련하여 안겨주고 생활상 애로되는 문제가 있을세라 제때에 알아보고 해결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는 이들입니다.

조국을 위해 피를 바친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자기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마음쓰는 이들은 정말이지 저희들의 친딸, 친손녀들입니다.

후에 알게 되였지만 부모잃은 세쌍둥이를 위해 남모르게 뜨거운 정을 기울인 최혜란동무의 소행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활짝 꽃펴나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안고 사는 이들을 저는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선교구역 장충2동 54인민반 박 인 숙

원군길에 새겨진 고결한 마음

보통강구역 세거리동 57인민반 리금화동무

선군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내 조국땅에는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참된 인간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다.

우리가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알게 된 한 녀인도 원군미풍의 대화원에 피여난 한송이 꽃이다.

그가 바로 군인건설자들속에서 《우리 어머니》로 불리우는 보통강구역 세거리동 57인민반에 사는 리금화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물심량면으로 성의껏 원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리금화동무가 20여년간 걸어온 원군길의 갈피마다에는 당의 선군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투철한 신념으로 받들어온 그의 고결한 인생관이 그대로 비껴있다.

누가 시켜서나 보수를 바라서 가는 길은 멀리 못 간다.

리금화동무가 20여년간 원군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비결은 무엇인가.

그 어떤 설명보다 그가 새겨온 자욱자욱을 더듬어보면 알수 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첫걸음이 힘들었다. 나서자란 평양을 멀리 떠나 최전연초소의 군관에게 시집온 리금화동무에게 있어서 돼지기르기란 상상도 못해본 일이였다. 하기에 그의 집에만 유독 돼지우리가 없었다. 군인가족이라면 돼지를 길러 군인들에게 보내주는것이 너무도 평범한 일로 되고있었지만 그는 자기와는 거리가 먼 일로 여기였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여 남편의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되였다는것을 알았을 때 소스라쳤다. 군인가족들을 마주보기도 두려웠다.

《돼지우리를 지어주세요.》

어느날 안해의 입에서 불쑥 튀여나온 말에 남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날 자그마한 돼지우리가 생겨났다.

그러나 아직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원군길의 시작이 아니였다. 남편의 체면이나 세워주기 위해 나선것이니 일이 잘될리 만무하였다. 그해에 겨우 30kg이 되는 돼지 한마리를 내놓고 머리를 들지 못하던 심정은 과연 어떠했던가.

그러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된것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피눈물의 7월부터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한몸바쳐 받들어갈 비장한 맹세를 다진 때로부터 참된 원군길이 시작되였다.

군인가족들은 혁명가의 안해이며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이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은 그의 정신적기둥이였고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였다.

돼지우리가 늘어났고 터밭도 늘어났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새 일과도 생겨났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그 헌신의 일과만은 변함이 없었다.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어깨우에는 더 많은 짐이 실렸지만 그는 더 큰 발자욱을 원군길에 찍어갔다.

어느해인가 새해를 맞으며 단번에 30여마리의 새끼돼지를 가져왔을 때였다.

어머니가 제정신인가고,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걱정과 원망에 젖은 주혁이와 주옥이의 목소리가 가슴을 허비였지만 말리는 살수 없는 그였다.

《무슨 일이나 마음이 모자라 못하지 힘이 모자라 못하는 법은 없단다. 언제나 전선길에 계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뜻을 따르자면 난 아직 멀었어. 그래서 군인들의 친어머니가 되여보자고 이렇게 애를 쓰는거야.》

바로 그 량심, 그 마음이 없으면 그는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것이다.

녀성의 몸으로 엄청난 수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다는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 길에 새겨진 피와 땀은 얼마였던가. 사료문제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새운 탐구의 밤은 얼마였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우기 위해 들인 품은 그 얼마였으며 수의방역문제로 겪은 진통은 또 얼마나 모질었던가.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한길, 원군길에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그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때이르게 성장한 자식들이 어머니의 땀젖은 모습을 가슴에 새겨안고 인민군대에 나갔고 대학으로 떠나갔다.

그의 일욕심에는 끝이 없었다.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된 온실식돼지우리를 통이 크게 건설하고 해마다 수백마리의 돼지를 길러냈다.

드디여 그는 한해에 350여마리의 돼지를 길러 22t의 고기를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30kg으로부터 100kg, 600kg, 1t, 5t, 10t, 16t, 22t…

그가 20여년간 혼자서 생산하여 원호한 돼지고기가 무려 80여t을 헤아린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의 소행자료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의 감사도 보내주시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시였으며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와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에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거듭거듭 베풀어주시였다.

그러던 그에게 뜻밖에도 마음의 갈림길이 놓이게 될줄이야.

남편이 조동되여 평양으로 이사하게 된것이다.

이사짐을 싣으면서도, 평양으로 달리는 차안에서도 그의 마음은 정든 돼지우리에 닿아있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놓았는가고, 이제는 돼지기르기졸업증을 받은셈이라고, 그동안 누리지 못한 락을 마음껏 누린다고 탓할 사람은 없을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던 마을사람들의 진정어린 목소리를 되새길수록 그의 가슴은 더욱더 아팠다.

《어깨가 가벼워지니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져요.》

안해의 마음속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남편이였다.

《조건이 달라졌다고 군인들을 위한 그 마음도 달라지겠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우리 군인가족들의 원군길에는 갈림길이란 없소. 오직 한길뿐이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리금화동무의 눈에 번개가 번쩍 했다. 심장이 세차게 높뛰었다.

갈림길이 없는 오직 한길!

이렇게 되여 그의 원군길은 다시 이어지게 되였다.

지난해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그는 원호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

그는 낮과 밤을 몰랐다. 지방에서 돼지를 기르던 그 열정으로 수십켤레의 장갑도 만들었다.

이렇게 마련한 원호물자를 안고 그는 려명거리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에게로 달려갔다. 우리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군인건설자들을 볼 때가 제일 기뻤다. 그래서 그는 정든 군인건설자들이 보고싶어 건설장을 찾고 또 찾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가족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그에게 사랑의 감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그는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을 명줄처럼 간직하고 오늘도 성스러운 원군길에 서있다.

그렇다.

순결한 량심의 길, 변함없는 신념의 길을 걷고있는 원군미풍선구자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자랑중의 자랑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 영 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불세출의 위인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전진할수록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이 더욱 뜨겁게 차넘치고있다. 세계도처에서 우리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칭송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우리 조국과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숭고한 경의의 표시이며 그이의 업적을 영원히 길이 빛내여나가려는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세계정치사에 흔적을 남긴 이름있는 정치가와 위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의 어리신 나이로부터 80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20세기를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신 걸출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는 없다. 20세기는 명실공히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기이다.

지난 세기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혁명적변혁이 일어나고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진 시대이다.
이 격변하는 시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지난 20세기초엽 조선혁명을 개척하시던 그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억압받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력사의 새시대가 도래하였다는것을 통찰하시고 주체19(1930)년 6월에 열린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독창적인 혁명리론을 밝히시였다. 이것은 새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의 고고성이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력사밖에 밀려났던 인민대중은 비로소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시대의 중심에 확고히 서게 되였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리론에 의하여 전개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의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세계식민지민족해방투쟁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이시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자주를 생명선으로 틀어쥐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력사적인 남호두회의, 남패자회의 등에서 하신 연설에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을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먼저 혁명이 승리한 나라들의 도움이 없이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는것이 기존공식으로 되고 자기 나라 혁명을 하는것은 민족리기주의로 인식되고있던 그때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립장을 밝히신 우리 수령님의 결단은 참으로 위대한것이였으며 국가적후방도 없이 또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주체적력량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자체의 힘으로 맞서싸워 승리를 안아오신것은 력사에 특기할 기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승리는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거세차게 일어났다. 1960년대에 들어와 아시아에서는 6개 나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4개 나라, 아프리카대륙에서는 30여개 나라들이 독립을 이룩하였다. 1970년대에도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독립의 기발이 휘날렸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일어난 이런 놀라운 변화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투철한 반제계급적립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화근이고 평화의 파괴자인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오시였다. 평화와 진보를 지향하는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킬데 대한 사상, 평화는 구걸할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맞받아싸울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었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전략》의 반동적본질을 낱낱이 까밝히시고 쁠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세계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침략과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건설을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선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전략적로선이다. 혁명의 첫 시기부터 무장한 적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대로 세계제패를 꿈꾸던 미일 두 제국주의를 쳐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세계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강대성》을 자랑하던 미국의 기를 꺾어놓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인류자주위업을 선도해나가는 불패의 보루로 위용을 떨칠수 있게 되였다.

진보적인류가 오늘도 《조선이 아니였다면 이 지구상에서 새로운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것이며 진정한 평화는 영원히 사라졌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미제를 쥐락펴락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것은 업적중의 업적이다.》라고 격동의 목소리를 터뜨리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진로를 명백히 밝혀주시고 강위력한 혁명의 총대로 그 실현을 위한 길을 개척하신 우리 수령님의 업적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도와주시여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중국혁명을 피로써 도와주시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서로 지지협조하고 단결할 때 승리할수 있다는 국제주의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일제의 대쏘침략계획을 파탄시키시였다. 해방후에는 나라의 사정이 그처럼 어려웠지만 시련을 겪고있던 중국의 혁명가들에게 많은 무기와 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해주심으로써 중국의 동북해방전쟁승리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이 반미항전을 벌릴 때에도 아낌없는 원조를 주시였으며 아프리카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새 사회건설에 적극적인 방조를 주시였다.

사실 우리는 미제와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부족한것이 많았다. 하지만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는것을 참다운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좀 조이더라도 줄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주도록 하시였다.

하기에 이 나라들은 오늘도 우리 수령님을 회고하면서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대성인,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그이께서 계시였기에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할수 있게 되였다고 격찬하고있다.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20세기는 자주의 시대로 자기의 력사적지위를 뚜렷이 남길수 있었으며 인류자주위업은 력사의 도전을 이겨내며 자기 발전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오늘도 래일도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우리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인류자주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승승장구하여왔으며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드시여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고계신다. 우리 공화국을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우시여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계신다.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그려보고있다.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인류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그 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 수령님들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길이 빛날것이다.

주 세 명

다시금 확증된 병진로선의 정당성

국제무대에서 지배주의세력의 횡포한 주권침해행위와 내정간섭책동에 의하여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여러 나라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심각한 사태가 의연히 지속되고있다. 바로 얼마전에도 미국은 수리아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고 이 나라 공군기지에 무차별적인 미싸일공격을 가하였다.

주권국가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행위이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에는 선전포고를 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다른 나라의 령토,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격을 가하는것은 침략행위로 되며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규제되어있다.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가 규정하고 유엔국제법위원회가 재확언한 국제법의 원칙에도 다른 나라 령토나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행위로 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정확히 규제되어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공격이 명백한 침략행위, 전쟁범죄행위에 속하기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하고 중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너무나도 응당하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어떻게 행동하고있는가. 수리아가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화학무기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느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경고를 무시하였다느니 뭐니 하며 저들의 행위가 《결단력있고 정당하며》 국제질서를 《수호》하는것으로 된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그런가 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수리아문제에 관한 결의를 강행채택하여 범죄행위를 합법화해보려고 시도하고있다. 그야말로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미국만이 할수 있는 날강도적인 행위이다.

원래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확고한 증거를 현데 기초하여 책임을 따져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똑똑한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화학물질에 의한 민간인피해의 책임을 수리아정부에 들씌우고 일방적인 미싸일공격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있다.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자는 수리아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전면거부하면서 판에 박은 소리만 되풀이하고있다.

미국은 애초에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였다. 이미전부터 미국은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수리아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 나라의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하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여왔다. 최근년간에는 불순분자들을 부추겨 내란을 일으키고 《이슬람교국가》와 같은 극단적인 테로조직들이 활개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테로소탕》이라는 간판을 들고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반정부세력들을 지원하였다. 어떻게 하나 반제자주적인 수리아정권을 제거하고 친미정권을 세우자는것이다.

현재 미국의 이러한 계획은 실현불가능한것으로 되였다. 수리아정부군은 광범한 군중의 지지밑에 테로분자들과의 전투에서 전과를 올리고있으며 적지 않은 지역을 해방하였다. 미국은 이것을 역전시켜보려 하고있다. 바로 그래서 수리아의 화학무기사용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수리아정부군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한것이다.

물론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런 수법을 적용한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전에도 미국은 이라크의 《핵 및 생화학무기개발》계획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되기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는것을 이라크침공의 명분으로 삼았다.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포웰은 어느 한 장소에서 간첩위성사진과 흰가루가 들어있는 작은 유리병까지 내보이며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존재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후날 그것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이라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국이라크무기사찰단 책임자는 국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이라크전쟁이 개시될 때 이라크에는 《그 어떤 대량살륙무기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정식 결론하였다. 포웰도 미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자기가 유엔에 제출한 문건에서 이라크가 《이동식생물실험실》들을 가지고있었다는 증거를 내놓은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여러 근거자료들이 부정확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꾸민것이라는것이 밝혀졌다고 실토하였다.

모든것이 확연해졌다.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위해서라면 날조와 모략으로 흑백을 전도하여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사용도 서슴지 않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다.

침략과 전쟁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힘의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대는 평화의 파괴자, 교란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나온 력사적사실과 수리아사태를 목격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절감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며 자기를 지키자면 힘이 강해야 한다는것이다. 또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위력한 전쟁억제력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이 되어 녹아나게 된다는것이다. 이것은 력사에 또다시 새겨진 피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이번 수리아사태는 우리의 병진로선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로선이며 핵무력을 비상히 강화해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해주고있다. 만일 우리가 일부 나라들처럼 그 누구의 도움에 기대를 걸거나 환상을 가지고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가지 않았다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지 못하였을것이며 경제강국건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는 정정당당하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시비할 권리가 없다.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기를 쓰고 부정하며 핵으로 압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팔짱을 끼고앉아 지켜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미국이 우리를 저들에게 얻어맞고도 즉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대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들이대는것이 우리의 배짱이고 기질이다.

지금 미국이 수리아에 대한 미싸일공격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메쎄지》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며 우리를 위협해보려 하지만 그따위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그 누구도 우리의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병진로선을 전략적로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자위적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계속 확대강화해나갈것이며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리 학 남

조선에 대한 도발소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일본 각계에서 터져나오는 항의와 규탄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에 대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우려가 커가는 속에 일본 각계에서도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단죄하고 당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련락회는 성명에서 현시대는 자주의 시대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이 강행하고있는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였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조선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일본정부도 이에 편승하여 대조선압살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우리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규탄하며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중지할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일조국교정상화를 촉진하는 가나가와현민의 회 사무국장 다까나시 아끼요시는 일본언론들이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을 부추기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지역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일본인민들에게 알려주며 일조우호관계를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 회장 무라야마 도모히꼬는 조선반도에 군사적긴장상태를 몰아오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시대착오적인 망동으로, 저들의 핵사용은 《정의》이고 다른 나라의 핵은 《악》이라고 하는 《미국우선주의》전략의 일환으로 락인하였다.

일조우호히로시마현민의 회 대표위원 요꼬따 히로미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은 《년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여 오던 외피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번 연습의 목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려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있다.

미국은 마치 군사연습이 조선의 핵보유때문인듯이 고아대고있는데 그것은 검은것을 희다고 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번 연습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침공작전의 강행이다.

우리는 조선에 대한 명백한 도발인 대규모적군사작전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오직 대화를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 의장 히모리 후미히로는 김정은위원장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은 그 어떤 위협에도 끄떡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반동세력들은 공화국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부질없고 위험한 도발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한짝이 되여 일본인민의 념원인 평화를 파괴하고있는 아베정권은 란폭한 무리라고 단죄하면서 일조음악예술교류회 회장 이께메 유끼에는 일본이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가나가와현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당국과 대중보도수단들은 조선의 탄도미싸일발사를 꺼들면서 도발이라고 떠들고있는데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자체가 도발적이며 조선으로 하여금 자위를 위해 미싸일발사를 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문제에 간섭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걷어치우고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무력을 철수하라!

일조우호현대군마현민회의도 성명에서 일본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는 침묵을 지키고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들에 대해서는 《위협》으로 오도하고있는데 대해 까밝히고 미국이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릴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조국교정상화조기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련대 오사까는 당국이 실패한 미국의 대조선전략에서 교훈을 찾고 공화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단을 내릴데 대한 요청서를 수상에게 보내였으며 사무국성원 고가 시게루는 만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일으킨다면 1953년 7월 27일이 반복될것이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은 공화국에 대한 압박소동을 그만두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특한 문화를 자랑하는 먄마

동남아시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있는 먄마는 지역에서 력사가 오랜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11세기에 바간왕국이 세워져 번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여러개의 작은 나라로 분할되였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전국이 통일되였다.

17세기부터 영국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86년에 영령인디아의 한개 주로 편입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일제의 강점과 영국의 재강점 등을 겪으며 불우한 력사를 이어오던 먄마는 마침내 1948년 1월 독립을 이룩하였다.

외래침략자들의 오랜 기간의 식민지지배를 받아오면서도 먄마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적전통과 풍습을 잃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90%가 불교도들이다. 그중에서 먄마족, 산족은 100%가 불교도이다.

해마다 불교와 관련된 주요 행사들이 년례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특히 4월에 진행되는 물행사가 특색있다. 4월 13일부터 4일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는 한해동안의 더러운것을 깨끗이 씻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물로 온몸을 적시는것이다. 이 행사기간에 거리에 나서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을 뿌려준다. 명절옷차림으로 단장한 젊은이들은 아름답게 장식한 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길가의 사람들과 서로 물을 들씌울 내기를 한다. 행사가 끝난 다음 사람들은 조용히 설을 맞이한다.

먄마에서는 불교력서에 따라 4월이 정월로 되여있다.

불탑의 나라로 불리울 정도로 이 나라에서는 어디 가나 불탑들을 볼수 있다. 큰 탑만 하여도 8 000개나 된다.

1044년부터 근 두세기동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불교의 성지였던 바간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불탑의 도시로 알려졌다.

해당 시대의 력사적사실들을 반영하고있는 불탑들은 그 조형과 자태가 각이하고 선명한데다가 정교한 조각장식, 섬세한 공예술, 뛰어난 기술이 배합됨으로써 먄마고대예술의 집합체로 찬양받고있다. 먄마에서는 어두운 농촌마을에서도 불탑에는 전등불을 켜놓는다.

크고작은 불탑들이 우뚝우뚝 솟아 아름다움을 다투는 모습은 먄마의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으며 찬란한 광채를 뿌리는 황홀함으로 하여 오늘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나라를 찾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먄마련방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재개 10돐이 되는 날이다.

본사기자 안 철 권

캄보쟈수상 조선반도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

캄보쟈수상 훈 센이 조선반도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였다.

20일 캄보쟈교육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수상은 조선반도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조선반도문제는 미국이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한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만약 미국이 조선을 공격한다면 남조선과 일본뿐아니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미국본토도 피해를 보게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의 안전을 위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모든 결정을 신중히 채택하며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 평화적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고조되는 반미기운, 가긍한 하수인의 처지

일본에서 미국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사가현 사가시에서 미군의 신형수송기《오스프레이》의 배비계획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오스프레이》는 오지 말라.》고 웨치면서 만약 배비가 결정되면 법정투쟁을 벌릴것이라는 내용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는 오끼나와현앞바다에서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오스프레이》의 불시착륙사고를 실례로 들면서 《언제든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후뗀마미공군기지소속 해병대의 신형수송기 《오스프레이》는 여울목에 불시착륙하다가 크게 파손되였다.

미국이 개발한 《오스프레이》는 추락사고를 드문히 일으키는 위험한 수송기로 세상에 알려져있다. 《오스프레이》가 주일미군기지들에 배비되기 전까지 미국본토와 해외기지들에서 발생시킨 사고만 해도 수십건에 달한다. 이로부터 일본인민들은 《오스프레이》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에 대한 배척운동을 강하게 벌리고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국민의 생명안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만 급급하고있다. 2018년까지 륙상《자위대》에 17대의 《오스프레이》를 배비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그 선정지가 바로 사가현 사가비행장이다. 일본당국은 일미동맹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느니, 일본의 안전보장과 직결되여있다느니 뭐니 하고 쓸개빠진 소리를 줴쳐대면서 문제투성이인 이 수송기를 저들 령토로 끌어들이는 머저리짓을 서슴없이 하였을뿐아니라 《자위대》가 그것을 리용하여 군사훈련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반미함성은 오끼나와현에서 더욱 높아가고있다.

최근 오끼나와현 지사는 담화를 발표하여 후뗀마미공군기지로 리용된 부지를 조기에 반환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는 현재까지 미군기지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것은 현내이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국의 그릇된 태도에 있다고 비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정부가 나고시 헤노꼬에로의 이설을 조건으로 삼지 말고 시급히 기지부지를 오끼나와현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오끼나와현의 나고시에서 미군기지의 현내이설을 반대하는 홍성투쟁이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캠프 슈와브미군기지앞에서 앉아버티기를 하면서 헤노꼬연안지역에서의 미군기지건설공사를 당장 중지시키고 현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미군기지유지비와 관련한 재정적부담을 줄일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오끼나와현 주민들의 반미감정은 남다르다.

미국은 오래동안 오끼나와에 미군을 주둔시키고있으면서 이곳을 거대한 해외침략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기지주변에서 살고있는 일본사람들은 소음공해, 페기물 등에 의한 피해를 많이 입었다. 게다가 주일미군은 치외법권을 담보하는 주일미군지위협정을 악용하여 오만무례하게 놀아대면서 기지주변에서 사는 일본사람들을 대상으로 온갖 범죄행위를 다 저질렀다.

1995년 9월 3명의 미군병사들이 일본인소녀를 롱간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것을 계기로 온 일본땅이 분노로 끓었다. 드세찬 항거에 직면한 일미 두 나라 정부는 1996년 4월 후뗀마미공군기지를 비롯한 일부 주일미군기지들을 일본에 반환할데 대해 합의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2006년에 미일은 오끼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후뗀마미공군기지를 같은 현의 나고시 헤노꼬에로 옮긴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후뗀마미공군기지의 현외 혹은 국외이설을 요구하는 오끼나와사람들을 우롱하는것이라는것은 론할 여지가 없다. 때문에 오끼나와현 주민들속에서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지금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후뗀마미공군기지의 현내이설은 강행되고있다. 미국은 나고시 헤노꼬에 단순히 후뗀마미공군기지를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범위가 더 크고 기능이 대폭 강화된 새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오끼나와섬 동부해안에 위치하고있는 헤노꼬에는 현재 미군의 캠프 슈와브미군기지와 탄약고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일미정부는 헤노꼬를 륙해공군의 작전능력을 통합하고 신속반응작전능력을 갖춘 대규모종합군사기지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한다. 일본방위성이 작성한 헤노꼬기지건설계획에 의하면 기지의 4분의 3은 바다를 메워야 하며 일본측이 전부 감당하게 되는 건설비용은 초보적으로 추산해도 2 000억¥에 달한다. 또한 미군은 길이가 1 800m에 달하는 2개의 활주로를 새로 내며 활주로북쪽에 기타 부대시설도 건설하려 하고있다.

헤노꼬기지건설후 후뗀마미공군기지의 미군수송기는 물론 미국이 처음으로 해외에 배치하는 《F－35B》전투기도 여기에 배비된다. 《와스프》급수륙량용상륙함이 정박할수 있는 정박장을 포함하여 일부 새 시설들도 건설된다.

이것은 후뗀마미공군기지이설이 주일미군기지유지강화책동의 일환으로서 철두철미 침략정책실현에 복종된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또한 후뗀마미공군기지이설은 일본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실현의 핵전초기지로 더욱 전락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등에 업어야 저들의 군국주의야망을 실현할수 있다는 타산이 일본정부를 주일미군기지의 파수군으로 만들었다고 할수 있다.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주인행세를 하는 미군범죄자《보호》에 극성을 부리며 막대한 액수의 주일미군유지비를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고있는 판에 자국민들의 항의와 규탄은 일본지배층에게 있어서 참새가 소잔등을 쫓는 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것이다.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자국민들의 생존권마저도 짓밟는 정부의 비렬한 행위는 민심의 더 큰 반항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ㄱ-71065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탁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